



KOFA, 이종운 수석부회장 자유총연맹 감사패 받아

MONTHLY KOFA

코파의

칭호

Tel. 021-55797281, E-mail : indokofa@gmail.com Add : Ruko Pinangsia Blok B-28, Karawaci Office Park



Vol. **54** 2019/03

KOFA 제인니한국신발협의회
KOREA FOOTWEAR ASSOCIATION

박재한 한인회수석부회장 제 6대 한인회장에 당선

2019년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이사회 정기총회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양영연)는 2월 26일, 쉐라톤 그랜드 자카르타 (간다리아시티)호텔에서 한인회의 명예고문,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자문위원,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이사회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양영연 한인회 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이사회는 국민의례, 2018년 결산보고 의안과 한인회 사업보고 의안을 심의하고 소속단체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영연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이 선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바란다. 한 단계 도약하는 한인회를 위해 용기를 내신 입후보자 세 분께도 박수를 보낸다”며 “개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신뢰를 주는 한인회로 이끌 수장을 뽑는 선택이 미래의 한인회에 한층 더 성숙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걸음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순서로 제6대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로 이어졌다. 투표와 개표절차 설명, 입후보자 기초연설, 투표 및 개표, 당선자 발표, 낙선자 인사, 당선자 인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인회 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118명 가운데 92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조규철 후보가 30표, 전민식 후보가 23표, 박재한 후보가 39표를 얻었다. 투표결과에 따라 다득표한 박재한 한인회수석부회장이 한인회장에 당선되었다. 박재한 후보는 정견발표에

서 “연회비 30만 루피아의 개인회원을 적극적인 홍보로 늘려나가 보다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하면서 봉사단체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할 것”과 “중요한 한인사회 관련 사안들을 연속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 절차적 정당성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한인들이 한인회를 향한 관심과 신뢰를 바탕으로 저는 마중물이 되어 다음 세대를 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인회장이란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모두의 자리와 역할이 있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한 제 6대 한인회장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KOFA, 이종윤 수석부회장 자유총연맹 감사패 받아



지난 3일 자카르타 록데 에 비뉴에서 열린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자유총연맹(회장:배연자)에서 주관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축제한미당에서 KOFA 이종윤 수석부회장이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KOFA는 그간 자유총연맹의 나라사랑, 독도사랑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특히 이종윤 수석부회장은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과 후원을 해 감사패를 받게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제6대 한인회장 박재한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내빈들이 참석했고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로 3.1절을 기념했다.

인니 정부, 노동재해보장 대상 질병 대통령령으로 규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정한 업무로 인한 질병에 관한 대통령령 ‘2019년 제7호’가 시행됐다. 사회보장실시기관(BPJS)의 노동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데 지침이 된다.

이번 대통령령은 지난달 25일자로 제정, 29일자로 발효됐다. 노동재해보장(JKK)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목록을 첨

부하고, 업무에 기인하는 질병에 대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고용관계의 종료 후 3년 이내에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7일자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와후 노동자 사회 보장 과장

은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도 향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령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대통령령 ‘1993년 제22호’는 폐지됐다.

탁월한 선택, 후회없는 결정

Kendal / Park By The Bay

중부자바내 스마랑 전략적 위치

국제항구, 국제공항, 스마랑 시내, TOL JATINGALEH KRAPYAK, Kienteng Sam Poo Kong, Hotel Horizon

구분	토지면적	인구	1년 졸업생	GDP성장률	주요인프라
스마랑지역	39,800Km ²	3백3십만명	150,000명	6%	탄중항구, 스마랑 국제공항

Vietnam-Singapore Industrial Park (베트남-싱가포르 산업단지)

- VSIP BAC NINH 2007**
Area : 700ha(500ha IP and 200ha C&R)
Total 54 projects
- VSIP NGHE AN 2005**
Area : 750ha
Phase 1:279ha (198ha IP and 81ha C&R)
- VSIP BINH DUONG 1996**
Area : 500ha IP
Total 238 projects - 100% occupied
- VSIP II BINH DUONG 2005**
Area : 2045ha IP (1345ha IP and 700ha C&R)
Total 206 projects
- VSIP HAI PHONG 2010**
Area : 1600ha (500ha IP and 1100ha C&R)
Total 32 projects
- VSIP HAI DUONG 2015**
Area : 150ha IP
Total 1 projects
- VSIP QUANG NGAI 2013**
Area : 1020ha (500ha IP 520ha C&R)
Total 09 projects

구분	VSIP박닌	VSIP하이퐁	VSIP응에안	VSIP광나이	VSIP빈중
토지가격	US \$70	US \$95	US \$38	US \$38	US \$70
공단특색	삼성, LG 1시간거리내	항구도시 (북부최대항)	인력풍부 (3백3십만명)	두산중공업	외국계최다 투자지역
추천업종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건설자재,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노동집약)	섬유, 신발 중공업	전자/전자 식음료, 제약
최저임금	3급지	1급지	4급지	3급지	1급지
개발규모	150ha	1,600ha	750ha	1,120ha	2,500ha

산업단지 문의 : 박병현 팀장 (문의메일 : Park.byunghyun@sembcorp.com)
한국 : (82)010-9081-0424 / 베트남 : (84)012-7828-7293

코참 '2019 코리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 성료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은 지난 2월 27일 'Together We Grow'를 주제로 연례행사 중 하나인 '2019 KOREAN BUSINESS DIALOGUE'를 물리아 호텔에서 개최하였으며, 정부 관계자 및 한인기업인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다.

코참 동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동 행사는 코참 송창근 회장의 코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각 부처 고위관료 참석에 대한 감사 환영사로 이어졌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김창범 대사는 축사에서 2018년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총 무역액은 약 186억 달러로 2017년에 비해 12.4% 증가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신남방정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한국은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는 등 4차 산업혁명 비전 실현을 위해 꾸준히 인도네시아를 도울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어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포(Airlangga Hartarto) 산업부장관은 'Industry Collaboration and Opportunity'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한국 기업가들의 지속적인 투자에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산업 부문에 대한 꾸준한 투자 증가를 장려했다.

무하맛 하니프 자끼리(Muhammad Hanif Dhakiri) 노동부 장관은 참석한 한국 기업인들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새로운 고용의 장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conomic Policy of Ministry of Finance'의 주제로 헤루 팡부디(Heru Pambudi) 관세청장의 발표가 끝나고, 로버트 팍빠한(Robert Pakpahan) 국세청장의 'Tax Revenue Update &

Fiscal Year 2019 Policy Direction' 발표가 계속되었다. 이날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하리야디(Hariyadi B. Sukamdani) 회장은 참석자들에 노동 집약적 최저 임금 규제, 사회적 책임(CSR) 그리고 종교 관련 민감한 공

공 이슈를 다룬 정책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신타(Shinta W. Kamdani)부회장도 참석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코참 이강현 수석부회장의 사회

로 진행된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산업부, 관세청, 국세청 국장이 참석하여 한인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매년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료를 초청하여 신 규정에 관한 내용을 청취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인 기업이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아울러 한인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전달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위한 행사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후원하여 코참에서 개최하는 연례 행사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코참은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개최하여 양국관계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인니 정부, 외관광객에 대한 부가세 환급 조건 완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규정을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증가를 촉진하고 외국인 여행자를 상대로 하는 중소 소매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25일자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로버트 세무 국장에 따르면, 재무 장관령 '2010년 제76호'을 개정하여 복수 영수증에 대한 VAT 합산이 총 50만 루피아 이상이면 환급 대상이 되도록 한다. 로버트 국장은 “



영수증 구입일이 달라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재무부는 지난해 여름 자카르타 등에서 개최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전

에 환급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1장 영수증의 VAT가 50만 루피아 이상이며 출국 1개월 이내에 구매한 상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2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방

문객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 환급 절차가 적용되는 국제공항 또한 국내 5개소로 한정되어 있었다.

ELIT3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PT. KEINTECH

PT. BIO-TECH

기술과 열정으로 다가간다!

사 출
일반사출(TPU,ABS,PC,PVC)
프레스(알루미늄, 신주, 철..)
TPR,PU,PVC

금 형
일반 금형
프레스 금형

코 팅
진공증착(멀티/알루미늄)
UV AUTO 코팅

스크린

인 쇄

패 드

PT. KEINTECH

Jl. Wisata Jangari KM 17 RT/RW 001/008 Desa Bobojong, Kecamatan Mande, Kab. Cianjur 43292 – Jawa Barat
Telp. : 0263-2294286, 0263-2294321, 0263-2294315 Fax : 0263-2294451

韓정부, 5년만에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상 재개



▲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엔가르띠아스도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재개와 관련한 공동선언문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신남방 정책의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양자 무역협상을 5년 만에 다시 시작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과 엔가르띠아스도 루끼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아세안(ASEAN) 10개국과 2007년 자유무역협정(FTA)

을 체결했으며, 이후 양국 관심사를 더 깊이 논의하고자 2012년 3월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양국은 입장을 좁히지 못했고, 2014년 2월 제7차 협상 이후 후속협상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이며, 교역·투자·경제협력을 포괄하는 무역협정을 다결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공식협상 재개를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 협력을 보다 내실화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성장잠재력이 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하루빨리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협상 역량을 집중해 올해 중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 통상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기업인 등 200여명이 모여 신보호무역주의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협력 기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8일 브루나이를 방문해 모드 아민 루압둘라 재정경제부 2장관과 양국 통신협력, 투자협력, 에너지·인프라 분야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20~21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다릴 레이킹 통상산업부 장관, 말레이시아 국부펀드인 카자나 내셔널 등과 통상·투자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육상운송협회,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버스 운행 검토



인도네시아 택시, 버스 회사 등이 가입한 육상운송협회는 서부 자바 반딧불과 동쪽의 동부 자바 바뉴왕이를 연결하는 자바섬 횡단 고속도로가 전면 개통함에 따라 자카르타-동부 자바 수라바야를 연결하는 장거리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통부 육운국의 아마드 야니 국장(운송 및 멀티모달리티 담당)은 “2개월 이내에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사 중이다. 운전자가 4시간 간격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터미널 위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육상운송협회의 아드리안포 회장은 “허브 터미널을 중부 자바 주에 2개소, 동부 자바 주에 1개소 설치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후보지로 중부 자바주 솔로 등을 꼽았다.

인니 교통부, 西갈리만만에 신공항 건설...2022년 개장 목표

인도네시아 부디 교통부 장관은 최근 서부 갈리만주 싱가왕(Singkawang)시에 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

민관 협력의 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2020년에 착공, 2022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싱가왕 신공항은 동(同) 주



쁘띠아낙의 수빠디오 국제공항(Supadio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북쪽 직선 거리로 약 130킬로미터에 부지면적 151헥타르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처음에는 활주로 길이 1,400미터로 건설하고 향후 보잉 737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2,600미터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부디 교통장관은 “싱가왕 신공항이 완성되면 뿌띠아낙에서 싱가포르까지 육로로 4~5시간이나 걸려 올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외화 수익의 금리 감면 규정, 새롭게 혜택 추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수출 사업에서 얻은 외화 수익을

국내 은행에 예금한 경우 예금 금리에 대한 소득 세율을 경감하는 우대 규정에 새로운 혜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화 수익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루피아 환율의 안정과 국내 경제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인니 재무부는 정기 예금과

단기 중앙 은행채(SBI) 금리에 대한 소득 세율의 경감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8년 제212호’를 지난해 말 공포했다. 재무장관령 ‘2016년 제26호’에서 단 1회만 실시된 경감 조치를 만기 후 예금을 지속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옮긴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 등을 담았다.

한편, 소득세의 경감 비율은

동결했다. 소득 세율은 입금 기간에 따라 미 달러화 예금은 0~10%, 루피아 예금은 0~7.5%로 줄일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0일자로 천연 자원의 수출 사업에서 얻은 외화 수익을 국내 은행의 특별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ACE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HVAC ENERGY DIVISION

공장이 무더워서 일하기 힘들다면...
EVEL HVLS 실링팬을 설치해 보십시오.
그 효과에 대만족 하실 것 입니다. !!!



인도네시아 설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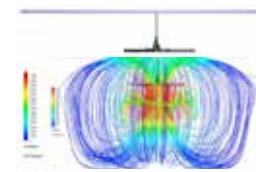


제품특징

- 이태리에서 원천 제조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조립 생산한 저속 고품량, 산업용 명품 천장형 공조팬
- 전기료 부담 최소 (750W / 대형선풍기의 3배)
- BLDC 모터 장착 - 소음과 내구성 탁월
- 건기/우기철 1년 내내 사용 가능 (건기철 : 뛰어난 더운 공기순환과 냉방효과, 우기철 : 습도제거와 쾌적한 기류 제공)
- 보증기간 : 핵심부품인 모터류 20년 사용보증, 제품 무상보증기간 : 3년

제품스펙 (Fan 직경 4M 기준)

- 제품라인업 : 2.2 ~ 7.3M (Fan Diameter 기준)
- 산업용(공장) 추천 제품 : 4 ~ 5M (Fan Diameter)
- 설치 수직높이 : 6 ~ 8M (팬 위치와 바닥높이의 간격)
- 설치 수평간격 : 16~ 18M (설치 제품간의 추천 간격)



- * Weight : 85KG
- * Fan Speed : 100 Rpm
- * 380/220V 설치 가능
- * Control System : 유, 무선방식 가능 (무선리모콘은 옵션)

제안,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차별화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락처: Mr. STEVE YOUN 0812 -9730 -5553 / 이메일: steveyoun.indo@gmail.com

GRAND WIJAYA CENTER BLOK E-11(A-9) Jl. Darmawangsa Raya -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 Indonesia, Office : + 62 - 21-2708-1859 / 720-4320 * 스마랑 지점 Mr. PARK 0811 -850 -5540

PT. ASSEMS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했다.



▲ PT.ASSEM 박성호 사장

봉제, 가방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공장 이전 전에는 많은 경쟁사가 있었으나 현재 이전 후 직접생산을 하게되어 경쟁력의 우위를 갖추고 독보적인 업체로 거듭났다.

ASSEMS의 제품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각 분야에서 그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장 가동률은 100%로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 가동되고 있으며 수요의 증가로 조만간 추가설비가 더 들어올 예정으로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ASSEMS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석권을 목표로 연일 땀 흘리고 있으며 미래성장의 날개를 달고 훨훨 날기를 기대한다.

KOFA 취재팀

ASSEMS(대표:박성호)에서 지난 1일 신공장 이전OPEN행사가 있었다.

기존 밀레니엄 공단내 960sq의 협소한 공간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경영을 해오던 차점차 사업의 확장으로 공장확

장을 하게되어 지난 4월에 공사를 시작해 약 8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약 1.12ha 규모의 공장을 완공해 오픈했다.

ASSEMS는 핫매트 필름을 주요생산품목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기존 수입해서

사용하던 공정의 일부를 직접 생산 하게되어 고객에게 더 빠르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다.

ASSEMS에서 생산하는 Hot-melt Film은 무색,무취,친환경 제품으로 신발업체,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판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어)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위기의 신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승의 본사는 서울이지만 자사 브랜드 '르까프'의 고향은 부산이다. 또 다른 국내 브랜드 '프로스펙스'를 유통하는 LS네트웍스 역시 1949년 부산진시장 한쪽에 설립된 국제고무공업사(이후 국제상사)에서 출발했다. 글로벌브랜드의 공세와 내수 침체 등으로 국내 브랜드가 수난을 겪는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는 신발도시인 부산의 신발업계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국제신문은 2회에 걸쳐 위기에 빠진 지역신발산업을 진단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르까프 등 토종 브랜드 고향 불구 1980년대부터 사양 길 접어들어 2010년 반짝 회복세 보였지만 中 저가 추격·개성공단 폐쇄 등 악재 잇따르며 문 닫는 기업 늘어 최저임금 부담까지 겹치며 한숨

11일 부산시가 작성한 지역 신발업계 자료를 보면 지역의 신발 관련 업체 수는 2014년 238곳에서 2017년 206곳으로 3년 새 13% 감소했다. 지역 신발산업은 완제품 및 부품소재 제조업체가 섞여 있다. 지난해에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더 많은 업체가 문을 닫았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업체 수가 줄면서 고용 규모 및 출하액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종사자 수는 2014년 5828명에서 2017년 5280명으로 9.4% 감소했으며 출하액도 2014년 9390억 원에서 2017년 8910억 원으로 줄었다. 전국 신발산업에서 차지하는 부산의 비중은 2017년 기준 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각각 44%, 48.5%로 여전히 절반을 차지한다. 1980년대 후 사양산업으로 꼽히며 수십 년간 하락세를 지속하던 지역 신발산업은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다. 당시 아웃도어 붐과 내수시

장 확대가 이어지면서 한때 신발업체 수가 240곳을 넘어서는 등 지역 업계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역 신발업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가격 인하 등 글로벌브랜드의 마케팅 공세가 강화됐고 중국 제품의 맹공략에 저가 시장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어진 내수 침체로 아웃도어 불마져 사라지고 일반 스포츠 패션이 그 자리를 채웠다. 설상가상으로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하면서 북한의 저임금과 저물류 비용에 기대던 지역 신발업체의 목줄은 더욱 조여졌다. 더욱이 최근 2년 새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집약산업인 신발산업의 설 자리를 더욱 좁혔다. 몇 년 전 자체 브랜드를 내세우며 야심 찬 계획을 내놨던 사상구 한 신발완제품업체 대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공장을 운영하기 어렵다.

3년 전이라도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은 것이 한스러울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하반기 일부 소규모 신발공장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또 다른 신발제조업체는 유동성 위기에 처하자 최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기도 했다.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관계자는 "지역 신발업계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관련 인프라 집적화 등을 고려할 때 지역 신발산업

표부착생산)·ODM(제조업자 개발생산) 업체와, 자체 브랜드 업체로 양분된다. 2015년부터 글로벌 브랜드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브랜드는 수난을 겪었지만, 지역 ODM 업체들은 글로벌 브랜드의 시장 확대와 더불어 급성장했다. 2002년 베트남에 공장을 세운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현재 월 총 610만(화승비나 380만, 화승인도네시아 150만,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80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며 아디다스의 전 세계 2위 공급업체로 올라섰다.

신발관·첨단융합허브센터 등 지역 인프라 집적은 큰 자산 OEM 업체 등은 시장 넓히고 자체 브랜드는 틈새 노려야 개성공단 재개되면 활력 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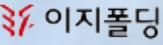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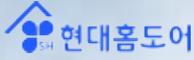
의 재도약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내 신발업계가 현재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지역 신발산업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관계자는 없다. 수십 년간 다져온 기술력과 응집된 노하우, 관련 인프라 집적화는 이러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배경이다. 12일 관련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지역 신발업계는 크게 OEM(주문자상

지난해에는 아디다스 그룹 생산업체 역량평가(Footwear Advanced Capability Track)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아디다스와 뉴발란스에 납품하는 파크랜드 역시 2005년 신발 OEM 시장에 뛰어든 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2020년 세계 5위 수준을 목표로 계속 확장 중이다. 나이키의 주요 ODM업체인 창신Inc 등도 최근 10년 새 매출액이 4배나 늘었다. 이런 바탕에는 단순 OEM이

아닌, 연구개발과 혁신에 주력한 덕분이다. 자체 브랜드를 내세운 지역 업체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틈새시장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화 브랜드인 '비트로'를 생산하는 학산이 대표적이다. 1995년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이후 국내시장 점유율 30%를 유지하며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제품 개발에 투자한 비용은 70억 원에 달한다. 트랙스타 역시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면서 해외 매출액이 매년 20% 증가하고 있다. 경남정보대 문진복(신발패션산업과) 교수는 "부산에는 신발업체와 한국신발과학연구원, 신발산업진흥센터를 비롯해 최근 문을 연 한국신발관과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돼있고 최근 성능인증시스템 구축까지 완료됐다"며 "이런 클러스터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키우고 공정 자동화까지 이뤄진다면 지역 신발산업의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남북 화해무드에 따른 개성공단 재개는 지역 신발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인건비가 싸고 기술인력이 풍부하다. 1일 생활권으로 각종 원부자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한국신발산업협회 문창섭(삼덕통상 대표) 회장은 "삼덕통상을 비롯한 지역 신발업체들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PT. KAISAR SINAR HISASH
www.siansash.co.id / www.pintulipat.id

우리는 窓門을 만듭니다!

시안의 窓門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 제작하고 책임시공을 약속합니다.





HEAD OFFICE / FACTORY JAKARTA
Jl. Pahlawan KM 1, Karang Asem Timur Citeureup – Bogor 16810 Indonesia

Telp. : 021-8794-3838 Fax.: 021-8794-3839
Email : info@siansash.co.id





3월 3일 일요일, 3.1 운동 100주년 평화걷기대회가 많은 한인동포와 인도네시아인이 참석한 가운데 수디르만 거리에서 펼쳐졌다.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박재한),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교장 백우정),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동남아 남부협의회(회장 송광중)가 주관하고 주인도네시아 대사관(대사 김창범)이 후원한 평화걷기대회는 시작부터 내린 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을 포함한 한인동포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다.

박재한 한인회 회장은 “독립의 뜻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고 남녀노소가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의 물결을 만들었던 그날을 오늘 자카르타 한복판 수디르만에서 기쁘게 재현해 보자” 라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김창범 대사는 축사에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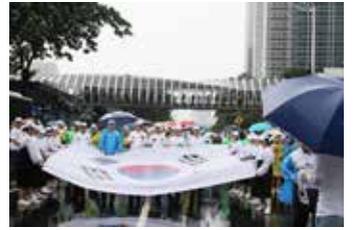
3.1운동 백주년 평화걷기 대회 성료



▲ 3.1절 100주년 평화걷기대회가 3일 자카르타 중심가 수디르만에서 열렸다.[사진:한인뉴스]

한민국 미래의 100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갈 3.1운동 100년의 의미를 부여했다. 독립선언서에 뜻을 같이 한

민족대표 33인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와 우신재(BIS.13)학생의 독립선언문 낭독, 삼일절 노래 제창, 한인회 김우재 명예고문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외치는 순으로 1부 순서가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걷기대회에는 유관순 열사를 상징하는 8명의 JJKS 여학생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앞장서고 사물놀이의 힘찬 연주를 들으며 태극기를 든 한인들과 인도네시아인들이 함께 행진하였다.

걷기대회에 참석한 한인동포 구정희씨는 “가정을 이룬지 얼마 안 됐는데, 부부가 되어 이런 행사에 함께 와보니 새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동포로서 강하게 느껴진다” 고 소감을 말했다.

이 행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른 아침 6시 30분부터 한인단체들과 JJKS 학생들의 후원과 각계 한인동포, 한국의 민주평통 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의 참여로 우천에도 불구, 잔치의 분위기로 이끌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산업은행, 자카르타 사무소 개소... 신남방정책 지원



산업은행이 26일 인도네시아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신남방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금융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개소식에는 성주영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비롯해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대사, 인도네시

아 금융감독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은행 측은 ‘글로벌 KDB’ 구체화를 위해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시장개척에 힘쓰는 동시에 신남방정책의 핵심국이자 아세안(ASEAN)의 중심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 개소

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프라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7개 프로젝트에 4억5,000만달러의 자금을 주선했다.

성주영 수석부행장은 “수십년의 해외 개발금융 노하우 및 기업금융·투자금융 강점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인프라 개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자카르타 사무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제교류를 증진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KOFA 광고를 제안합니다.

KOFA에서는 소식지를 통해 신발관련 업체들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신발업체, 부품업체, 및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코파소식지(월간)

특징

- 1) 소식지는 KOFA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회원사 약 200여 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 2) 전달 하고자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2, 광고 상품안내

- 1) 연간(12회) 계약 혜택 : 2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 2) 6개월(6회) 계약시 혜택 : 10% 할인,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KOFA 사무국 :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찢어진 농구화에... 나이키 가슴 철렁, 주가도 출렁

나이키의 찢어진 농구화 한 짝이 미국 주식시장까지 출렁이게 했다.

22일 미국 나이키의 주가가 1% 넘게 빠졌다. 시가 총액 약 11억달러(약 1조2370억원)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에어 조던’ 브랜드를 필두로 전 세계 농구화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현역 NBA 선수 70% 이상이 사용하는 나이키를 휘청거리게 한 것은 한 대학 선수의 ‘찢어진 농구화’였다.

윌리엄슨은 2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서 열린 듀크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의 전미대학농구리그(NCAA) 경기에 출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모교이고, 올해 최강 전력으로 꼽히는 듀크도 ‘코트의 신사’ 그랜트 힐 등 수많은 NBA 스타를 배출했다. 미국 대학농구의 대표적인 라이벌 맞대결 티켓 값은 3500달러(약 400만원)까지 치솟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경기장을 찾았다.

경기 시작 30초 만에 일이 났다. 윌리엄슨이 드리블을 하다 갑자기 넘어졌다. 카메라에 밀착이 찢긴 왼쪽 농구화가 비쳤다.

윌리엄슨은 무릎을 찢푼다며 코트 밖으로 나갔고, 결국 듀크대가 72대88로 졌다. 검진 결과 윌리엄슨은 오른쪽 무릎을 살짝 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신은 농구화는 나이키가 폴 조지(29·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브랜드로 제작한 100달러(약 11만원)짜리 ‘PG 2.5’ 제품. 사고 소식을 들은 폴 조지는 팀 훈련장에 몰려든 기자들에게 “내가 자부심을 가져온 농구화에 뭐가 잘못됐는지 나이키에 빨리 알

NBA 드래프트 1순위 윌리엄슨, 경기 30초만에 농구화 터져 부상 현역 선수 73%가 신는 나이키... 순식간에 시가총액 11억弗 증발



▲ 자이언 윌리엄슨이 찢어진 운동화 때문에 넘어지고 나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그가 왼발에 신는 농구화는 밀착 부분이 완전히 뜯겨져 나간 모습이다. /USA투데이 연합뉴스

아보라고 했다. 그가 빨리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이키는 올상, 경쟁사는 방긋 나이키 농구화는 미국 보험 업계도 슬렁이게 했다. 미국 농구계는 2005년 ‘원앤드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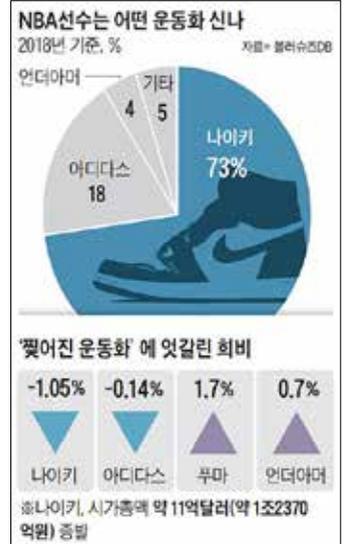
(one and done)’ 제도를 도입해 대학 무대에서 1년 이상 뛰어야 NBA에 데뷔할 수 있도록 했다.

윌리엄슨은 듀크대에서 뛰는 1년 동안 당할 부상에 대

비해 드래프트 전체 16순위에 못 들면 800만달러(약 90억원), 선수 생활을 마감하면 최대 1500만달러(약 170억원)를 받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NBA 드래프트 전체 5위 안에 뽑히면 4년간 연봉 1260만달러(약 140억원)를 받는다.

불량 농구화에 빨난 팬들은 인터넷에서 패러디 잔치를 벌였다. 찢어진 슬리퍼를 나이키 신제품으로 소개하거나, 나이키의 슬로건 ‘저스트 두 잇(일단 해봐)’에 빗대 ‘저스트 글루 잇(일단 풀칠이나 해)’이란 유행어를 만들었다. 나이키에 맥 못 추던 경쟁사들은 입꼬리가 올라갔다. 푸마는 “윌리엄슨이 우리 제품을 신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약 올렸고, “앞으로 윌리엄슨이 어느 회



사의 농구화를 신겠느냐”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베팅에선 아디다스가 나이키를 제쳤다. 일부에선 이번 ‘찢어진 농구화’ 최고 수혜자로 윌리엄슨을 꼽기도 한다. 부상이 가벼워 예정대로 드래프트에 참가할 경우, ‘가해자’인 나이키와 경쟁사인 아디다스, 언더아머, 푸마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쟁탈전에 나설게 확실하다. 특히 불량 농구화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나이키의 입장이 가장 절박하다.

친환경 조립 신발 크라우드 펀딩 시작

부산 신발업체 ‘케이아이 에코비’
美서 대박, 국내 판로 개척 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린 부산의 신발업체가 국내 판로 개척에 나섰다.

신발 제조업체 ㈜이너스코리아는 1일부터 크라우드 펀딩 전문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 자사의 친환경 조립신발인 ‘케이아이 에코비’ (Kiecoibe·사진)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너스코리아의 대표 제품인

케이아이 에코비는 접착제를 쓰지 않는 조립형 신발이다. 마모된 부분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취향에 맞게 색상이나 소재를 바꿀 수도 있다. 다양한 스타일로 조립할 수 있으며 일상화나 실내화 등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췄다.

이너스코리아는 미국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당초 목표액인 3만 달러의 220% 이상인 6만 6000달러

의 성과를 거뒀다. ‘친환경’을 내세운 마케팅이 성공을 거둔 셈이다. 해외 시장의 성공을 발판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국내 판로 개척에 나선다. 크라우드 펀딩은 와디즈 홈

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너스코리아 김규덕 대표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 조립신발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Best Quality
Fast Delivery

아디다스, 재활용 플라스틱 운동화 1100만 족 생산



아디다스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발을 2018년 500만 족 생산한 데 이어

올해 2019년에는 2배에 해당하는 1100만 족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스포츠 용품 업체인 아디다스와 해양환경보호 단체인 팔리포더오션(Parley for the

Oceans)은 2015년부터 협업을 해오고 있으며, 해변가에서 채취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수거된 플라스틱은 실로 만들어져 아디다스 신발의 갑피로 사용된다.

신발뿐만 아니라 FC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유니폼,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에 참가한 독일 출신의 알렉산더즈베레프 선수가 착용했던 경기복 등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로 의류도 생산하고 있다.

아디다스 글로벌 브랜드 책임자 에릭 리드케(Eric Liedtke)는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아디다스 제품은 디자인과 기능성, 뛰어난 품질은 물론이고 해양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제공한다.

아디다스는 2017년에 100만 족, 2018년에 500만족의 재활용 플라스틱 신발을 생산했으며, 올해에는 1100만족의 운동화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디다스 글로벌 오퍼레이션 책임자 길 스테야르트(Gil Steyaert)는 “아디다스의 지속가능성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다방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아디다스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도,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폐기물 방지에 힘쓰는 등 생산 과정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작년에만 해도 전 세계 사무실, 매장, 창고, 유통망 등에서 40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속 가능한 소재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최근 아디다스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UN기후변화 협약에서 패션산업을 위한 기후 보호 헌장에 서명했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줄이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아디다스는 해결책이 존재하는 한, 모든 제품과 응용분야에 있어서 2024년까지 오직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힘쓰고 있다.

<데일리안>

나이키 맞먹던 부산 신발브랜드 어디 갔나

최근 ‘르까프’ 브랜드를 가진 화승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한 때 세

생산하기보다 나이키 제품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OEM으로 국내 신발기업이

도약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인건비가 싸고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남북경협을 재도약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부산일보>

부산 토종 신발브랜드 변천사



계적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부산 토종 신발브랜드의 부침이 주목받고 있다.

르까프는 1980년대 ‘프로스펙스’와 함께 세계적 브랜드 나이키와 힘을 겨룰 정도로 대표적인 부산 전통 브랜드였다.

르까프 이전의 유명 부산 토

종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부산 토종 신발브랜드의 부침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1982년 리복의 등장으로 심화했다.

외국 브랜드에 맞서 1981년 국제상사가 내놓은 프로스펙스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지만 1985년 국제상사가 정

日 기술·부자재 도입으로 성장 월드컵·프로스펙스 등 브랜드 키워 해외 OEM 주력하다 ‘사양길’ 남북경협, 재도약 기회로 삼아야

종 브랜드로는 말표, 기차표, 왕자표, 슈퍼카미트, 월드컵, 프로스펙스 등을 들 수 있다. 고무신 산업으로 시작된 국내 신발산업은 일본으로부터 관련 기술과 부자재를 쉽게 도입할 수 있었던 부산이 일약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

1947년 ‘말표’라는 상표를 내세운 태화고무공업사를 시작으로 1949년 ‘왕자표’의 국제고무공업사, 1953년 ‘기차표’ 동양고무공업, 1954년 ‘범표’ 삼화고무공업 등이 잇달아 부산에서 설립됐다.

이들은 고무신으로 시작했지만 1960~1970년대 부산을 신발 산업의 메카로 만든 주력 브랜드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70년 나이키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국내 대형 신발업체들은 자체 브랜드를

지적인 이유로 해체되면서 사양길을 걷는다.

국내 기업의 자체 브랜드 개발 노력은 계속돼 1975년 ‘월드컵’이란 브랜드를 내놓았던 동양고무는 1986년 르까프를 출시하고 1989년 회사명을 화승산업으로 바꾼다. 대양고무공업은 1985년 슈퍼카미트 상표를 등록했으며, 삼화고무공업이 모태인 삼화는 1984년에 타이거 상표로 스포츠화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에도 부산 업체인 트랙스타와 비트로가 주목을 받았다.

부산시도 1997년 부산 공동 브랜드 테즈락을 설립했지만, 경험 부족 등으로 실패했다.

지역업체에서는 수년간 OEM을 넘어 제조자개발생산(ODM)을 해온 경험을 고려할 때 국내 신발산업의 재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 콘덴싱 보일러
- 횡형수관식 보일러
- 수관식 보일러
- 노통연관식 보일러
-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 무압관수식 보일러
- 진공온수 보일러
- 관류형 보일러
- 소용량입형연관식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자카르타 : 유성열 Hp : 0812 1902 2247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 Gotri Jeb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bara – Jawa Tengah

기업銀, 인니 법인 출범 앞두고 통합작업 ‘분주’



IBK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인도네시아 법인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말 인수 승인을 받은 현지 은행들의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아그리스은행(PT Bank Agris) 본사에서 IBK인도네시아 은행의 통합 IT시스템 인프라 도입 및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회에는 기업은행 본사의 IT 관련 부서 실무진이 직접 참석해 제안 업체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IT시스템 통합 작업 일정을 점검했다. 특히 통합 IT시스템 구축 사

업에 대한 이해도와 제안요청서(RFP)에 기재된 요청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기준으로 후보 업체들을 평가했다. 기업은행은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IBK인도네시아 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차질 없이 IT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IBK인도네시아 은행은 기업은행이 중국 법인에 이어 해외에서 두 번째로 설립하는 현지 법인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PT Bank Mitraniaga)의 인수 승인을 동

시에 취득한 바 있다. 두 은행의 합병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IBK인도네시아 은행을 설립하는 게 목표다. 그간 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위해 경영·전략, 인사, 리스크, 자금, 여신, 수신, 외환 등 각 부문별로 합병 후 통합 작업(PMI)을 준비해왔다. IT시스템 구축은 법인 출범 후 원활한 영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통합 작업으로 꼽히는 분야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최근 PMI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인수 은행의 경영진과 면담도 진행했다. 면담에는 오혁수 글로벌·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이 참석해 인수 이후 진행 절차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에 보고할 사항 등을 체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의 인수 승인을 받은 이후 곧바로 두 은행의 합병 작업에 착수했다”며 “올해 상반기 중 IBK인도네시아 은행을 출범시켜 조기 안정화와 현지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락사고 났던 인니 저가항공사 잇단 안전문제...당국 조사 착수

이달에만 네 차례 이륙중단·회항·안전사고... 인명피해는 없어

작년 10월 말 추락사고로 189명의 인명피해를 났던 인도네시아 저가항공사 라이온에어(Lion Air) 소속 여객기들이 이달에만 네 차례나 안전상 문제를 일으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8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라이온에어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11일 중앙 자바 주 스마랑에서 자카르타로 출발하려던 라이온에어 소속 보잉 737-900ER 여객기가 이륙 직전 운항이 취소된 것을 시작으로 안전 관련 문제와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같은 달 12일에는 남(南)술라웨시 주 마카사르에서 중부 술라웨시 주 팡루로 향하던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이륙 30분 만에 회항했다. 16일에는 서(西)팔리만판 주 쾰피아낙의 수빠디오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해당 공항은 한동안 운영이 중단됐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고는 지난 21일 서(西)파푸아 주 소롱 공항을 이륙한 라이온에어 소속 737-900ER 여객기가 25분 만에 회항한 것이다. 기체 안전과는 무관하지만, 이달 14일에는 여객기 객실 상단 짐칸에서 살아있는 전갈이 발견돼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보호재단(YLKI)의 폴루스 아바디 회장은 라이온에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교통 당국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작년 10월 29일에는 불과 두 달 전 인수한 보잉의 차세대 기인 737 맥스(MAX) 8 여객기가 자카르타 인근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고기는 실속(失速) 방지장치 오작동으로 기내 컴퓨터가 반복적으로 기수를 내리는 바람에 조종장 문제를 겪다가 추락했다.

하지만, 현지에선 추락 전날 마지막 비행에서도 사고기가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점 때문에 라이온에어의 항공기 정비와 승무원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이 미흡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언했다. 또한 다른 종류의 발전소에 비해 연료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 사업에 주력하고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도 인하할 방침을 전했다.

국영 전력 PLN, 산업용 전력 2023년까지 요금 인하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 PLN은 계약 용량이 3만Kva(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대규모 산업에 대해 전기 요금을 인하할 방침을 나타냈다. 실시는 2022~23년경이 될 전망이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보도했다. PLN의 조꼬 이사(東자바 발리, 누사 텡가라 지역 사업

담당)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 전기 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980루피아로, 이것을 800루피아까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PLN의 소피안 바시르 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총 발전 용량 3,500만Kw의 전력 개발 계획에 따라 건설된 발전소가 모두 가동된 후 전기

요금을 인하하기 쉽다”며 “실시는 3~4년 후가 될 것”고 설명했다. 조꼬 이사는 251Twh(테라와트시)를 목표로 하는 올해 전력 판매량의 80%가 산업에 대한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며 “산업용 전기 요금이 내려 가면 이웃 나라에 대한 산업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말

1. 인도네시아 전지역(공장, 주택, 스포츠센터) 설치 가능
2.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책임준공 서비스
3. 스크린골프 & 영화감상 & 노래방 3 in 1
4. 1년간 무상 A/S(정기방문)

Investment Opportunities to a Human resources

PT. TEEUP VISION INDONESIA
+62-813-1129-8822

‘섬 국가’ 인도네시아 ... 물류산업 성장 위해 투자 박차

약 1만8,000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물류산업 성장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190km의 광활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이는 한반도의 8.5배에 달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는 물류산업 성장의 잠재성을 내포하면서도, 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군도가 가장 많은 나라다.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규모와 인구 수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연 5%대의 경제성장률은 물류 산업 발전의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게다가 다양한 해상운송과 국제 화물 운송업자, 육로 운송에 연계된 택배업자, 다양한 종류의 운송업을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업자들이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물류 산업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운송 및 물류 창고업의 시장 규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10.79%가 성장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특히 2017년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는 안정된 경기, 수출입 및 투자유치의 활성화, 글로벌 경제의 성장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류 인프라 구축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다. 부족한 물류 인프라로 인해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대다수가 화물의 대부분을 말레이시아, 혹은 싱가포르에 보관 중이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물류 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물류협회(ALFI) 따르면, 지난 2017년 인도네시아의 물류 비용은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25%으로, 태국(13.2%), 말레이시아(13%), 싱가포르(8.1%)보다도 훨씬 높다. 지난해에는 전체 GDP의 23.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추산됐지만, 주변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유기 누그라하완 ALFI 회장은 “현재 계획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모두 구축되면 물류 비용은 GDP의 21% 수준이 될 전망”이라며 “화물에 대한 모든 추적 절차 및 배송 체

계 부분의 디지털화가 완벽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 물류 비용이 GDP의 18~19%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류 산업 인프라 구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이 국가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조코 위도도(통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당선 이후 관련 정책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15년에 정부예산으로 할당된 에너지보조금 지출은 341조8,000억 루피아(한화 약 27조 3,440억원)에서 119조1,000억 루피아(약 9조 5,280억 원)로 감소한 반면, 인프라 지출은 157조4,000억 루피아(약 12조5,920억원)에서 256조1,000억 루피아(약 20조 5,136억원)로 증가했다. 또한 올해 국가 예산안의 에너지보조금은 160조 루피아(약 12조8,160억원)로, 2015년도 지출보다 53.2% 감소했지만, 인프라 지출은 415조 루피아(약 33조 2,415억원)로 62% 늘었다.

지난 2012년에는 육로 및 해상 운송이 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2017년부터는 항공 운송과 육로 및 해상 운송의 차지 비중이 거의 비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육로와 해상 운송 분야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소매시장이 최근 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항공 운송의 경우 역직구 및 해외 관광객 입국 수 증가 등이 빠른 속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운송 분야는 연평균 21.84%의 성장률을 보이는 항공 운송이며, 철도 운송(17.78%)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공항이나 터미널 등의 증축과 신규 개발 등 인프라 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17년에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58개의 국내선과 25개의 국제선 등 총 83개의 신

규의 상업용 항공 노선 개통을 승인했고, 이외에도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 증축과, 족자카르타 국제공항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철도 또한 마찬가지로 MRT 및 LRT 등 자카르타 도심 및 광역 철도 노선을 구축 및 개통해 나가고 있으며, 2017년에는 자카르타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과 중부 자카르타를 잇는 공항철도가 최초로 개통됐다.

이외에도 해양 고속도로의 구축으로 인한 선박 증가 역시 운송 분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은 실제로 쌀이나 설탕, 밀가루, 시멘트, 식용유 등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본 등 6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



행정안전부 4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앞으로는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행정기관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재외국민이 전입 신고를 위해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대상 6종은 외교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서,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국토교통부의 지적전산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환자) 등이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35개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160개 정보를 공동이용 할 수 있고, 738개 기관이 2573개의 민원사무

등에 이용하고 있다. 또 이용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이용 가능한 정보의 선정부터 이용목적, 이용기관, 사후관리까지 엄격한 절차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중소기업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저소득층 공공요금 감면, 자활근로자 확인 등 연간 약 40만 건의 민원 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이용범위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면 된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꽃피는 금융한류, 해외점포 33% 아세안에... 146 곳에 달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각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이 현지에서 좋은 성적표를 내놓고 있다. 아이돌을 중심으로 한 문화 한류 못지않게 '금융 한류'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남아 금융 한류는 문재인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연결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등이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를 방문해 '금융 영토' 확장 가능성 등을 타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지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하고, 지역 금융감독 당국·현지 은행과도 접촉해 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과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잇달아 동남아로 출국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은행·보험·카드 등 국내 금융사의 해외 점포(지점·사무소·



법인)는 총 436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세안 10개국에 33%(146곳)가 몰려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63곳(14.4%)으로 가장 많고, 미국 55곳(12.6%)에 이어 베트남이 52곳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베트남에 국외 거점을 내는 금융회사가 꾸준히 늘고 있어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25곳, 미얀마 21곳, 싱가포르 18곳 순이다.

은행권에서는 외국 진출 성공 사례로 '신한베트남은행'을 꼽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최근 호찌민시 중심가인 1군에 있는 신한베트남은행 본점에서 만난 회사원 응우옌후선

푸영 씨(27)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도 비슷하고 친근한 느낌이 든다"며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이미지가 더 좋아졌고, 한국계 은행이나 유통 업체에도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국외 점포 범위를 은행업 면허(라이선스)를 가진 현지 법인으로 좁혀보면 격전지는 단연 인도네시아다.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

dara Indonesia)뿐만 아니라 KEB하나은행(PT Bank KEB Hana Indonesia), 신한은행(Shinhan Bank Indonesia)까지 3개 법인이 은행업 라이선스를 획득해 영업 중이다.

여기에 OK저축은행이 인도네시아 안다라은행(Bank Andara)과 디나르은행(Bank Dinar)을, IBK기업은행이 아그리스은행(Bank Agris)과 미트라니아가은행(Bank Mitra Niaga)을 각각 인수해 합병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 OK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 초 12만4,000명 수준이던 신한베트남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수도 지난해 말 18만명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근무 직원 규모도 외국계 은행 중 가장 많은 17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7%는 현지인이다.

신한베트남은행은 지난해 호

주계 ANZ은행의 소비자금융 부문을 인수·합병하면서 베트남 전역에 30개에 달하는 소매금융 네트워크를 단숨에 확보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KB국민은행도 지난해 자산 규모 기준으로 현지 14~15위 규모인 부코핀은행(Bank Bukopin)의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의 부실 수준을 관리하며 차차 인수·합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직원 10여 명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나은행이 네이버의 손자회사 라인파이낸셜로부터 지분 투자를 받아 연내 인터넷은행(디지털은행)을 선보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비해 아직 금융 발전 정도는 낮지만 잠재력이 큰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영토 확장을 노리는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하다.

외교부, 아세안 10개국 전담 국(局) 설치 추진



駐아세안대표부 대사 격 높이고 인원도 확충...對아시아 외교조직 확대

외교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든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 강화를 위해 아세안 10개국 상대 외교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를 맡고 있는 남아시아태평양국은 인도를 비롯한 서남아 국가들과 호주·뉴질랜드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세안 10개국 업무만 따로 떼어내 별도의 국(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중국 업무만 전담하는 국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중국과 일본 업무를 동북아국에서 함께 맡고 있다.

외교부의 구상대로라면 현재 동북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인 대(對)아시

아 외교 조직은 아세안국-중국국(가칭)-아시아태평양국(일본·인도·오세아니아 담당) 등 3국 체제로 확대된다.

외교부는 또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주(駐) 아세안 대표부 대사의 격을 높이고 인원도 현재 5명 수준에서 10여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세안국 신설과 주아세안대표부 인원 확충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이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미디어 코리아 광고를 제안합니다.

미디어 코리아는 귀사의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특징

미디어 코리아는 탄탄한 디자인파워를 바탕으로 한 타블로이드판 정보지로서 귀사의 홍보를 지면을 통해 대행해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함께하는 매체로 다가갈 것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HKI PT.HANJIN KONSTRUKSI INDONESIA
HUJ PT.HANJIN INDONESIA JAYA

고객의 미래를 함께 건설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인도네시아 모든 지역에서 한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플랜트 / 건설 / 토목



Jl. Modern Industry III/4 Kawasan Industry Modern Cikande RT 000, RW 000 Desa / Kel. Nambo Ilik Kec. Kibin Serang Banten

Tel : (0254) 402323 6 Fax : (0254) 402327

Email : pthanjin@hanjinind.co.id

www.hanjinpower.com